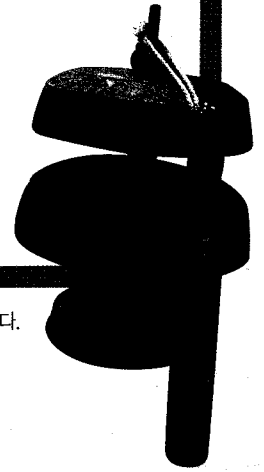


# 조학균 신부의 “미사 이야기”



※ 주 : 평화신문에 연재된 조학균 신부님의 “미사 이야기”입니다.

## 4 - 말씀전례, 하느님과 대화하시는 시간

시작예식에서는 교우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며 겸손한 태도로 하느님의 자비를 청했다면, 말씀전례는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한 대화 안에서 당신 의증을 드러내시며 삶의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씀전례는 하느님 말씀을 듣는 순간이며, 동시에 하느님과 교우들의 대화 시간이다. 즉 교우들은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여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기 교회에서는 성찬례에 영세한 신자들만 참석했는데, 영세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찬 예식 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마시라는 사제의 말을 잘못 이해할까봐 말씀전례가 끝나면 돌려보내고 영세한 신자들만 성찬례를 거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말씀전례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까지 예비 미사, 혹은 예비신자 미사라는 말로 미사전례 안에 있었다.

말씀전례의 중요성은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에서 강조됐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성서부흥과 전례부흥에 힘입어 말씀전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으며, 나아가 미사의 본질적 요소로 자리 잡게 돼 성찬례와 더불어 미사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말씀전례의 특성은 “하느님 말씀과 공동체의 화답”이며, 그 구조의 성서적 근거는 엠마오의 제자 사화(루카 24,13-35)와 사도 바오로의 트로아스 주님 만찬(사도 20,7-1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말씀전례에서는 하느님 말씀을 생생히 듣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교우들이 성경을 눈으로 읽거나 혹은 함께 읽는 태도는 말씀전례의 의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말씀전례를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들의 구원 신비를 알려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양식인 당신 말씀을 독서자 음성을 통해 전해주신다. 특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백성에게 하늘의 신비를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더불어 당신 생애를 통해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기에 말씀전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



조학균 페드로 신부  
예수회 전례학 박사

## 4.1 말씀전례의 의미와 가치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느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다. 하느님 말씀은 단순히 일회성 사건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도 영속적으로 반복 계시되고 있다. 하느님 말씀은 항상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교우들에게 구속과 구원의 신비를 열어 주시며, 영적 양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말씀전례에서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의 의미를 다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1)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직접적 말씀.
- 2) 구원 능력을 지닌 하느님 말씀.
- 3) 하느님 구원 업적의 기념과 선포.
- 4) 믿음을 낳고 기르는 말씀.
- 5) 참 생명을 주는 영적 양식.

또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는 말씀전례 안에서 하느님 자신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교회는 하느님 말씀과 주님 성체와 함께 거룩한 전례 안에서 모든 교우들이 끊임없이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양육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하느님 말씀은 교회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되고, 교회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말씀의 양식, 영신 생활의 깨끗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해주며, 신앙의 최고 규범으로 생각하게 해준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끊임없이 동참하기 위해 말씀전례를 통해 주님의 전 생애를 기념하고자 교회력에 따라 봉독하고 있는데, 이는 듣는 이로 하여금 각자 마음에 새기도록 하고 말씀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구원으로 인도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은총의 열매는 각자의 노력과 태도에 달려 있는데, 마르코 복음의 자라나는 씨의 비유(4,26-34)에서 보면,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자세에 따라 다르게 열매 맺는다. 하느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과 같이,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이 시작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 5 - 말씀 전례의 구조

### ■ 하느님 말씀 듣고 인간이 화답

미사전례는 말씀전례와 성찬례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미사에 참례하는 이들이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가족을 구성하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어느 분이 더 중요하냐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예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성찬례에 참례하는 것은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도에 발표된 「로마 미사 지침서」에 의하면 말씀전례의 중심 부분은 성경 말씀들과 그 사이에 오는 노래로 이루어진다. 이어 오는 강론, 신앙고백, 보편지향기도는 이 중심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완결한다. 독서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구속과 구원의 신비를 열어 보이시며 영적 양식을 주신다. 강론은 봉독한 말씀을 해설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말씀을 통해 여러 신자들 가운데 실제로 현존하신다.

### ■ 이렇듯 미사전례에서 하느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1) 말씀전례에서 봉독하는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하느님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말씀은 언제나 살아 있으며 힘이 있고, 신앙생활에 활력소가 되며, 나아가 신앙생활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원 업적을 거룩한 표지와 말씀으로 기념하고 재현한다. 성경에 기록된 하느님 말씀은 성경을 봉독할 때마다 특별한 모양으로 그 현존을 실현시킨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전례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현존하실 뿐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Hic et nunc)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실현시키시며, 인간에 대한 성부의 사랑이 실제로 드러나게 한다.

결국 말씀전례 부분에 있어서 독서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생애가 놓여 있으며, 교회가 지정하는 독서 내용은 성경 본문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성경 이외에 그 어떤 책도 하느님 말씀을 대신해서 읽을 수 없다[새 '미사 전례서 총지침(2002)'에 따른 간추린 미사 전례 지침, 19쪽]. 말씀전례에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멀어진 하느

님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이로써 하느님과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다. 즉 하느님과 그리스도인들과의 통교가 성경 봉독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대화에서는 언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씀전례에서 언어는 하느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봉독과 그 성경 말씀을 풀이하는 사제나 부제의 강론이나 훈화, 그리고 이에 화답하는 교우들의 기도와 노래로 규정할 수 있다. 전례 언어는 전례의 본질적 요소일 뿐 아니라 전례의 기본 구조를 하느님의 말씀과 인간의 화답으로 만드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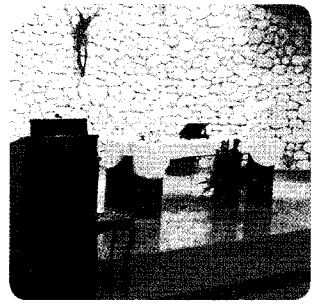
사실 성경 봉독과 강론은 이미 구약 유다교 예배의 기본 형태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거행되는 시나고가 예배는 율법서와 예언서의 봉독과 강론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교는 성경을 미사 중에, 특히 말씀전례 중에 봉독하는 예식을 받아들였다. 초대 교회에서는 미사전례 중 독서로 성경 외에도 치명록이나 주교들의 서한들도 읽었지만 중세 초기부터 성경만 읽도록 해왔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전까지 공식 전례 언어는 라틴어였지만 공의회 이후에는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개방은 전례에서 성경 봉독을 더욱 풍요롭고 더욱 다양하고 더욱 적합하게 해준다.

## 6 - 하느님 말씀, 마음에 녹이다

### ■ 독서(하느님 말씀)

말씀전례의 핵심인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독서는 대축일과 주일에는 세 가지 독서가 봉독된다. 첫째 독서는 구약에서, 둘째 독서는 사도들의 편지나 사도행전 및 묵시록에서, 그리고 셋째 독서는 복음에서 선택한다. 평일에는 두 가지 독서가 봉독되는데 첫 번째 독서는 구약을 포함한 신약에서 복음을 제외한 부분에서 선택을 하고 둘째 독서에서는 복음을 선택한다. 주일이나 대축일 미사의 독서는 3년을 주기로 이뤄져 있으며, 평일 미사의 독서는 2년 주기로 이뤄져 있다.

교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전례 개혁의 일환으로 성서학·전례학 분야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주일 미사를 위해 3년 주기로 독서를 배분하고, 평일 미사를 위해서는 이와 병행하여 2년을 주기로 독서를 배분했다.



주일과 축일에는 신자들이 많이 참여하기에 이 미사 때의 독서는 성경의 주요 부분을 총망라하고 있다. 복음 배분에 있어서, 연중 주일에는 공관복음을 기준으로 '가'해에는 마태오복음, '나'해에는 마르코복음, '다'해에는 루카복음을 낭독한다. 이중 '나'해에 선택하는 마르코복음은 분량이 짧기 때문에 연중 17~21주일에는 요한복음으로 보충하고 있다. 연중 시기가 아닌 특수 시기에는 요한복음이 봉독된다.

평일 독서는 주일과 축일의 보충 독서로서 주일과 축일에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을 선택해 봉독하게 된다. 주일 독서와 달리, 평일 독서에서는 독서 내용과 복음 내용 간의 연관성이나 조화가 고려되지 않은 채 배분된다.

성경 말씀이 봉독될 때, 공동체는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경의 한 장면, 한 장면의 신비와 장소를 상기함으로써 하느님께서 공동체의 면전에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듣는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결의에 따라 로마미사 전례서 총지침(29항)에서는 “성서가 봉독될 때에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며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의미를 지니며 무엇보다도 “전례의 중요한 요소인 하느님 말씀을 봉독할 때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봉독될 때는 회중이 하느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성경을 눈으로 보거나 공동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다. 미사 참례하는 것은 전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통교하려는 것이지, 성서 교육을 위해 참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과 통교를 위해서는 독서자가 봉독하는 성경 말

씀의 뜻을 잘 이해하려고 경청해야 하며, 경청한 후에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응답을 드려야 한다. 성경을 눈으로 읽어 나가면, 듣기에 앞서 먼저 성경 내용을 개인적 이성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 성경을 눈으로 읽어나갈 때 독서자의 말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이성으로 받아들여 논리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믿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결코 성경을 온전히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특징이다.

## 7 - 독서를 하러 갈 때 어디에 절을 하나?

### ■ 전례 중심자리 '제대' 향해

미사 전례에 참여하는 많은 교우들이 혼란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하러 갈 때 어디에 절을 하느냐 하는 문제다. 교우들은 제대와 감실, 독서대 그리고 주례 사제 중 어디를 향해 절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 물론 저마다 합당한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교회 가르침을 말하자면 미사의 중심인 **'제대를 향해 절을 해야 한다'**가 정답이다.

### ■ 제대의 의미

제대는 제물 봉헌과 전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봉헌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장소이며, 그리스도인들을 당신 식탁으로 초대하는 감사제의 중심이다. 제대는 미사전례를 거행할 때, 특히 성찬례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룩한(聖) 변화의 장소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제대의 실제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신 장소이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드신 식탁이다. 성찬례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 만찬을 재현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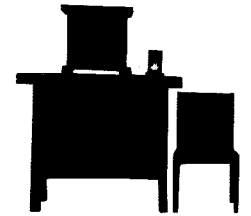
그리고 교회를 건축할 때에 제대는 동쪽이나 동쪽에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다. 동쪽은 새 날의 시작을 알리는 태양이 뜨는 방향이고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대 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점이자 원천인 성찬례가 거행되기에 교회는 제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 이로써 제대는 예수님께 대한 추억을 되살리는 하나의 상징물, 파스카 신비를 연상시키는 기념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당을 축성하는 예식 때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은 제대 축성이고, 성당이 허물어진 후 그 자리를 보존할 때도 유독 제대가 있던 자리를 신경 써서 보존하는 것이다.

성당이 성찬례를 거행하기 위해 지어진 건물이요, 또 그 성찬례가 이루어지는 곳이 제대인 까닭에 성당의 중심은 언제나 제대임을 알 수 있다. 초기 교회에서 미사전례에 참여하는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제대였으며, 성당을 건축할 때 가장 신경을 쓴 것도 제대였다. 그리고 감실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었기에, 제대 위치를 결정한 후에 감실 위치를 결정했다.

성체를 모시는 감실은 성당의 어느 곳 이든 상관없이 자리를 잡았으며, 16세기 이후에야 제대 위 또는 제대와 가까운 곳에 감실을 모시게 됐다. 제대를 장식하기 위한 꽃, 초, 십자가를 위한 자리도 16세기 이후에나 언급됐다는 사실에서 교회 건축과 미사전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려한 것은 제대였음을 알 수 있다.

감실 앞에 앉는 것은 파스카 신비를 묵상하기 위함이지만, 제대는 바로 그러한 파스카 신비의 상징 자체이다. 그러므로 미사전례 안에서는 언제나 제대가 중심 자리에 있어야 한다. 물론 감실 자체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감실 안에 모셔진 성체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파스카 신비를 묵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실 때문에 제대의 중요성이 감소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감실 위치를 현명하게 배치해야 한다.



- 다음 호에 계속 -